뉴스1

1. 당선 소감은?

사천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위대한 사천시민 덕분입니다. 위대한 사천시민의 승리입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됐지만, 기쁨보다 더 큰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큰 고통 속에서 불편함을 겪으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저를 선택하신 것은, 산적한 과제들을 빠른 시일내 능수능란하게 해결해 달라는 시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침체된 사천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천시 최대 현안인 항공우주청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금같은 기회를 주신만큼, 사천시를 항공우주산업의 중심도시,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2. 선거 과정 어려움은?

이번 선거는 당내의 경선과정부터 다른 후보자와의 본선 경쟁까지 무척 힘든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상대 후보자들이 만드는 지역대결 구도와 아주 극심한 네거티브는 후보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선거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선과정에서부터 누구를 탓하거나 비방하지 않았고, 항상 시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초심으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특히,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시민들과 만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결과를 공약으로 담아냈습니다.

저의 진실성이 유권자의 표심에 닿았는지 전 읍면동에서 한곳도 빠지지 않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시장선거에서, 사천시가 생긴 이래,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후보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 시군통합 이후 우리 사천시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가 된 원년의 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사천의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제 공약의 최종 도착지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얼어붙은 사천의 지역경제를 살리기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사천의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일에 역점을 두고, 시행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지역사랑 상품권이 없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았는데요, 내년부터 사천사랑 상품권을 발행,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경영자금과 창업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6억원의 출연금 지원하고, 72억원의 신용보증을 해주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대출 금리에 대한 2.5% 이자를 1년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을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장려금을 1년간 적립해 드리고, 소상공인들의 상점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소방·안전·주차 기반시설을 확충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사천읍시장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 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생활형시장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유치와 함께 첨단 융복합 자율주행 모빌리티 허브 구축, 자율주행 조립 생산공장과 연구소 설립, 스타트업 창업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늑도와 인근 섬을 다리로 연결하는 '무지개빛 생태탐방로'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으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다 가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민선 8기 중점 추진 사업은 무엇인가요?

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면서, 항공우주산업도시인 사천시를 한 단계 더 높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청을 놓고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벌였던 대전에서는 지

금도 우주청 유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우주청과 항공청을 분리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청 사천 설치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명확하게 확정된 것입니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대전에서 주장하는 우주청과 항공청 분리는 항공과 우주산업의 연관성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은 우주관련 위성 및 발사체의 설계와 생산의 핵심기술을 공통으로 활용하는 상호 호환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연계 육성해야만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미국 보잉, 유럽 에어버스 등 항공우주산업 선진국은 항공업체가 중심이 되어 우주기술 고도화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를 비롯한 국제적인 상황인데도 대전에서 계속 우주청 유치, 항공과 우주 분리를 주장하게 되면,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행위로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롭게 대전시를 이끌어가실 이장우 당선인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천시는 항공우주청 사천 설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 발굴과 종합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중요한데,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저의 공약대로 항공우주청 사천 설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5.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지금 사천시는 '**도시경쟁력 상실의 위기**'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 지역경제 근간을 이루던 항공제조산업과 관광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5월,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이 명문화되면서 사천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약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른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청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주여건 마련과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8기는 항공우주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의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는 사천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모든 시

정 역량을 집중해 **침체된 사천 경제를 되살리고, 시민 행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MRO와 항공제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항공우주청 설립을 계기**로 세계7대 우주강국 도약에, 사천이 중심에 설 것입니다.

아름다운 **한려해상에 생태·휴양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관광객의 발길**을 잡아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높아지는 사천의 위상만큼, 사천시민들께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시민복지 정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으로 시민의 여가선용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공공 산후조리원과 어린이 체험 놀이공원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의 행복을 크게 키워나갈 것**입니다.

제가 공약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항공우주산업중심도, 해양관광거점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6.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수위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해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 저는,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과감히 인수위를 꾸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각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하여 하나하나 챙겨서 취임과 동시에 시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인수위원회에 대한 제 복안을 아시는 시민들께서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다 들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시민과 시 발전만을 바라보며 시정을 펼치겠다는 저의 의지를 믿고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7.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극복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재원 마련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이번 6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조례제정이 완료되고 나면, 별도 계획 수립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는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능한 9월 추석 전에는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천시민은 11만2000여명으로 부차적인 운영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1인당 30만원 지급시 33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집행 예산과 잉여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확보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정부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와 철저한 재정검증을 통한 예산 조정으로 지방채 발행없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를 믿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

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선거운동 기간동안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말 잘하는 시장보다 일 잘하는 시장, 이론에 밝은 시장보다 현장에 밝은 시장, 아는 것이 많다고 떠드는 시장보다 시민의 말을 귀담아 듣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부처를 끊임없이 방문해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시행 가능한 시책부터 먼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오로지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특히,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희망찬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풍요로운 사천, 위대한 사천을 만드는데 시민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